

# 도 완주·전주 상생협력 '순항 중'

### 행정부지사 주재 상생협력사업 추진상황보고회...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 등 큰 호응

전북특별자치도는 17일 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양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3차례 협약을 통한 2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협약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2022년 11월 협약을 시작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은 5개 분야 28개(문화·체육·관광 10, 지역경제 6, 도로·교통 4, 안전·환경 5, 농업·교육 3)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176억원(국 853(40%), 도 447(20%), 전주 666(30%), 완주 210(10%))으로 주민 생활 편의 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협력하고 있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 4층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가 열렸다.

먼저 완주와 전주의 지역 간 경계는 허물고 지역은 살리는 완주전주한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이 2024년 1월 첫 시행하면서 인접 생활권 주민들의 이용이 편리해지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만 개에 육박하고 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료 상호 할인'으로 완주군과 전주시 양 지역 주민들이 공공시설 5개소에서 동일하게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다. '도서관 문화 협력사업(도서관 회원기금 자율화 등)' 시행으로 거주지 인근 도서관 어디에서나 회원기금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전주시 예술단의 '찾아가는 예술 공연'이 15회 진행했고 완주군과 전주시가 문화예술을 통해 화합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여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서울 장학숙 '전주중 남학사'에 완주군 대학생에게도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2024년 4명, 2025년 4명을 선발했다.

완주와 전주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완주전주한 경제 공동체를 구축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대표 관광지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완주·전주 시티투어버스'를 2024년 70회를 운영해 433명이 이용했고, 양 시군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완주군 주차장 일원에서 개최된 만경강 청년 축제 '일찍상봉'에 완주청년정책사업단과 전북청년정책포럼, 전주청년희망단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전국 초청 '상생발전 한마음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를 통해 양 지역 간의 화합과 스포츠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원예농가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전주시 원예농협에 소속돼 있는 완주군 거주 계약재배 농가까지 전주시에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원예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이 경감되고 원예 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와 전주의 편리하고 안전한 완주전주한 생활인프라를 조성한다.

'완주 예비군훈련장 시설개선사업'은 2024년 12월에 완주군 소양면 예비군훈련장 주차장 포장과 배수로 정비 완료했다. 전주·완주 지역 예비군 1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예비군 대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훈련을 받게 됐다.

삼승 침수 피해지역 재해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덕 세천 정비사업'과 '마월 소하천 정비사업'은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 기여와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관저수지 돌레길 및 힐링공원', '파크골프장(구, 고산, 울진)', '혁신도시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지역의 교통사고 예방과

## "尹 파면이 국가 정상화의 시작"

### 민주 도당 "계엄 이후 경제는 심각... 현재, 신속 결정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김슬기 수석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일당이 자행한 내란 계엄이 105일째를 맞았다"며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맞섰던 2위 수준으로 치솟는 등 경제 타격이 IMF 외환위기와 코로나19 대응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당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결과 윤 대통령의 파면만이 국가를 정상화하고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도당,尹 파면 촉구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 애도

### "고인의 뜻 이어 윤석열 파면 반드시 이루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던 중 쓰러져 숨진 한 당원의 명복을 빌며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에서 '광주 정신'을 지키며 열정적으로 활동했던 신상길 당원의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의 마지막 외침이자 유지로 남겨진 민주적 헌정 질서 수호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의 안타까운 희생을 윤석열

열 정권이 무너뜨린 법치와 민생을 국민이 직접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씨는 17일 오전 8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 사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중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전북도당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이숙자 남원시의원, 장승마을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실태 점검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최근 장승마을을 방문 주민들의 의견을 나누고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실태를 살피며, 우수사례가 널리 홍보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 환경과는 분리배출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교동 장승마을은 남원시 환경과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해져 시너지 효과를 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주민들은 재활용 동네마당을 활용해 분리배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쾌적한 마을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관영 도지사 "흔들림 없는 도정·민생 최우선"

### 도정 현안에 집중 주문... 범국민적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 당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정치적 이슈에 흔들림 없는 정중동 자세로 도정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올림픽 유치, 대법원 개정, 정부 추경 대응 등 도정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고 결과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하여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올림픽 후보도시 선정이라는 성공적인 분위기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제무대에서 전북의 경쟁력을 입증·홍보하고 국민적인 올림픽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림픽 선정이 우리 도에 가져올 변화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SOC 조기 확충, 고용 창출, 관광 객 유치, 브랜드 가치 향상 등 경제적 효과와 달라질 전북의 위상과 미래상을 적극 홍보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RISE 사업에 대해 "인재 양성에서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각 사업 간의 일관성 있는 방향과 통합적인 추진이 중요하다"며, "실국, 시군, 대학 등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관련해 "익산, 고창, 남원 3개 시군이 계획대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논리와 전략을 바탕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규제 완화 방안' 발표에 대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부처별 예산 한도액이 결정되는 4월 중순까지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앞서 철저한 사전 준비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만호 기자

## 민주 윤준병 의원, 반려동물 산업 현안 논의

### 한국애견협회 방문...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 일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최근 서울 광진구 어린이회관에 위치한 한국애견협회를 방문해 반려동물 훈련·미용 산업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기획한 '찾아가는 농어업 민생탐방'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농림축산 분야 의회 및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윤준병 의원을 비롯해 한국애견협회 신귀철 회장, 박예경 사무총장, 반려견지도사회 분과위원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영역에서 활동한 뒤 은퇴한 공공 사육견(군견, 경찰견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소한의 건강검진 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입양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동물위탁관리업'의 업종

분류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만 제한되어 있어 중·대형견 훈련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협회 측은 동식물관련시설 등으로 등록 범위를 확대해 현실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격려가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 창구가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직접 듣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을 접했다"며 "반려동물 훈련·미용 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尹 파면 촉구 열기 이어가

### 단식투쟁·피켓시위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민주전북혁신회의의 파면 촉구 시위가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무기 단식을 일주일째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전북혁신회의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앞 천막농성장에 전국혁신회의의 방응송 공동상임대표와 조지훈 전북공동대표, 이우규 진안상임대표, 김진명 임실공동대표, 최서연 전북 상임위원이 무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최정호 익산공동상임대표는 익산역 소년상 옆에서, 이주갑 완주군 의원은 의회 옆에서 단식 중인데, 지난 1일부터 17일째여서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아울러 전주 완주 정읍 혁신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아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에 20여 명이 상경해 집회 대열에 합류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과 피켓시위가 진행 중이다. 단식 단식의 경우 전주와 완주 익산 장수 정읍 임실 부안 등지에서, 피켓 시위의 경우 주로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진안군과 장수군 김제시 무주군 익산시 완주군 정읍시 임실군 군산시 등지에서 릴레이로 행해지고 있다.

전국혁신회의의 방응송 공동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만이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파면 결정이 날 때까지 전북지역 회원들과 함께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 도의회 의원들, 천막농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 의원들이 지난 14일부터 도청 앞 도로변에 천막을 치고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를 외치며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추운 날씨에도 천막에서 농성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만이 내란 종식이라고 주장했다.

17일은 국주영은 전 도의회 의장과 임승식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천막에서 자리를 지키며 내란 종식을 위한 농성에 동참했다.

한편, 도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